

신라와 발해의 건축문화 통섭 착수

The start of consilience within Silla and Balhae's architecture

이병건(Byeonggun LEE, 동원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동질성
 - II-1. 발해와 신라의 대외관계
 - II-2. 기존 연구성과
 - II-3. 새로운 요소 탐색
- III. 맺음말

I. 머리말

지금까지의 발해건축 연구는 특정 주변국가(민족)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중원지역은 당과의 관계, 한반도지역은 고구려와의 관계이다. 발해는 국가가 성립된 후 당과 일본과는 활발하게 교류를 이루어 나갔지만,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신라와는 몇 차례의 공식적인 왕래가 있을 뿐 이렇다 할 외교관계는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발해의 공식적인 국제관계에 몰입되어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고구려나 당과의 교류에만 역점을 두어왔다.

물론 발해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맹주였던 당의 도성제도(都城制度)를 비롯한 선진의 상층 건축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살림집과 같은 기층 건축문화는 당시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었던 고구려와 말갈의 주거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발표자도 이러한 기존 입장과 시각에서 당과 고구려와의 건축적 상관성에 역점을 두고 발해건축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발해 땅 몇몇 유적에서 보아왔던 건축기법들이 신라 땅 경주에서도 눈에 띄므로써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식적인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문화는 자생적으로 주변지역과 여러 방면에서 자의든 타의든 교류하게 되어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21세기 남과 북이 대치관계로 교류가 희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끈이 지금도 이어져 있다.

흑룡강성 영안(寧安)에 있는 발해 상경성 내 궁전건물 기단부 밖 바닥에는 돌못(石釘)이란 건축부재가 사용되었다. 이는 추운 겨울에 동해(凍害)로 땅바닥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땅 속 깊이 돌못을 박아놓는 건축기법의 한 방안이다. 이러한 기법은 경주지역의 불국사 본전 지하문 밑 축대, 월정교 문루, 남산 중창지 축대, 감은사지 중문 밖 축대 등에도 똑같이 발견된다. 발해와 신라에 동질성을 가진 건축문화가 존재했음을 대변해 주는 사례이다.

한편 경주지역의 석탑에서 세련미를 더하기 위해 석탑 옥개석이나 건축물 바닥 모서리에 사용되었던 우동(隅棟)이 발해 상경성 궁성과 제1절터 기단부와 길림성 훈춘 팔련성 궁전건물지에서도 동시에 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문화는 자의든 타의든 자생적 요소를 바탕으로 내재적 발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외래 요소의 유입과 내재적 유출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화적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다. 발해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후대의 요와 금나라에도 도성을 비롯한 많은 건축문화를 전승시켜 주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비록 아직까지는 몇 건에 불과한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동질성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상호교류의 단서들을 찾아 나감으로써 발해건축의 정체성을 탐색해 나가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해와 신라의 대외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동질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이 부분은 북한의 입장이 대부분이다. 셋째, 발표자가 발해와 신라 지역에서 찾은 동질적인 건축기법들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발해건축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함을 제안해 보았다.

II.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동질성

II-1. 발해와 신라의 대외관계

발해가 건국된 즈음 초기에는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하였음이 최치원(崔致遠)의 기록에

전하고 있다. (『東文選』, 卷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대조영이 신라의 벼슬인 대아찬(大阿飡)을 제수 받았던 것이다. 당시 신라가 나당전쟁의 양금으로 당과의 국교가 단절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주축을 이룬 발해로서는 당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의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신라도 나당전쟁 이후 평안했던 북방에 새롭게 등장한 ‘발해’라는 세력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입장에서 발해의 세력이 한반도지역으로의 남하와 발해를 견제해야 하는 당 입장이 부합하여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나빠지게 된다. 일본을 내세워 신라를 견제한 일, 발해가 등주를 공격한 이듬해인 733년 당과의 협공작전으로 발해를 공격한 일, 734년 다시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하려고 시도한 일 등등. 일련의 양국 관계로 신라는 결국 735년 당이 패강(대동강)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하게끔 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국경선이 결정된 셈이다. 이렇듯 발해 ↔ 당 ↔ 신라는 각각의 이해에 따라 서로 견제해 나가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나당 연합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고 자부하는 신라와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을 규합하여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양국 간의 잠재적인 대립 의식은 발해의 세력 남하로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당의 요청에 의해 신라가 발해를 공격함으로써 전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는 발해를 점차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물론 신라 지배층인 진골 귀족들에 국한한다. 건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화와 경제적 교류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양국 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진골 귀족들의 발해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은 발해 멸망 이후 한국사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전개됨에 따라 한국 중세 사회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유득공의 ‘남북국시대론’으로 대표되는 발해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세 사회의 해체기에야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2007, 143~148쪽)

II-2. 기존 연구성과

한국건축에 대한 시대구분 방법은 크게 ㉠우리나라 역대왕조를 기준으로 한 구분

방법과 ⑧고대→중세→근대로 나누는 삼분법(三分法)적 구분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11~15쪽) 위의 두 방법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구분 방법을 채용하든 남한과 북한의 고구려 및 발해건축에 대한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삼국시기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독자적인 건축기술을 정착시키게 되었고, 백제와 신라의 고구려 척 사용 흔적이나 백제의 장인 아버지가 황룡사9층탑 건립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삼국이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174쪽) 하여 건축 기술적 교류는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의 일반적인 시대구분 개념인 '통일신라시대'를 부정하고(최근에 출판된 위의 『한국건축통사』는 삼국시대를 '전기고대'로 통일신라시대를 '후기고대-남북국시대'로 설정하여 점차 건축역사학계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발해 및 후기신라시대'라 하여 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구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5』 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즉,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한국역사의 무게중심을 북쪽으로 맞추려는 의도이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및 발해와 관련된 많은 고고조사보고서와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주장은 일관되게 남북분단 후 지금까지 '북국중심론(北國重心論)'에 방점이 찍혀있다.

삼국시대인 세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 글 가운데 리정남의 논문(「삼국시기 수도형식에 관한 연구」, 『고고학연구논문집19』, 사회과학출판사, 2011)을 보면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형식을 유적현황과 발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술하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고구려가 "위 두 나라 도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로 글을 맺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대부분의 건축 관련 글들은 동일한 전개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북국인 고구려의 영향과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즉, 남측보다는 고구려를 비롯한 북측 영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발해건축 관련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장상렬의 논문(「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3』, 사회과학출판사, 1971)을 살펴보겠다. 글은 두 개의 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에서는 발해건축 유산에 대한 자료들을 분류 체계화하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당시에 크게 발달한 발해건축의 모습을 입증하려 하였다. 제2편에서는 당시의 주변 다른 나라 건축과의 대비를 통해 앞에서 살펴본 공통점들이 발해건축의

특성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그 역사적 위치와 관련한 발해건축의 몇 가지 특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발해건축을 고구려, 통일신라 및 고려건축과 대비함으로써 발해건축이 우리나라 민족건축 유산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밝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논증하였다. 글의 결론은 건축방면에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이를 고려에 전승했다는 것이다.

본 발표의 주제인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에서 동질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상렬이 제시한 발해와 통일신라(검토된 신라유적이 통일신라 이후라는 확증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통일신라'를 '신라'로 통칭함)의 공통점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리방(里坊)을 바둑판 모양으로 조직하였으며, 리방들 사이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씩 건너 엇바뀌어 놓였고, 큰 길들을 사이에 두고 4개씩 단위를 이루어 '田' 모양으로 묶여져 있었다. 당시 동양의 성시(城市)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리방을 조직하였으나 이렇게 4개씩 단위를 묶은 것은 드물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구려 평양성, 발해 상경용천부, 신라 경주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원칙은 이후시기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신라에서는 발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돌을 많이 썼으며 잘 다루어 건축물을 튼튼하게 하였다. 신라 왕궁이었던 경주 월성의 성벽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명활산성, 선도산성, 남산(신)성 등은 모두 많은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셋째, 신라의 돌칸흙무덤과 돌곽무덤은 고구려나 발해의 돌칸흙무덤과 구조상 같은 계열의 것이고, 돌곽흙무덤도 돌을 기본으로 썼다는 점에서 위의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넷째, 발해와 신라는 돌로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데 공통적인 수법을 썼다. 당시 돌로 우물을 쌓는 풍습을 발해에서 보았는데 이러한 돌우물이 경주를 비롯한 신라 여러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우물 마감 테두리를 팔각으로 한 것이 있어 발해 상경성의 팔보유리정과 좋은 비교가 된다. 발해의 돌우물은 땅 속에 병 모양의 역학적 곡선을 지어 견고성을 높인데 특색이 있다. 신라에서도 첨성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돌로 역학적 곡선을 지은 구조물을 쌓았다. 신라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기초하여 석굴암과 같은 커다란 지하구조물까지 만들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석굴을 만들 때 바위를 뚫거나 자연동굴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다르게 돌로 구조물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고도의 역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석굴의 천장과 같은 구조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토대와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신라와 발해가 기술발전 수준에서도 대등하였으며, 서로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였다.

다섯째, 신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돌을 많이 썼는데 그 솜씨가 발해와 통하는 점이 많았다. 감은사지를 보면 주춧돌에 기둥밑받치개(주좌)를 둥글게 새기고, 거기에 벽선까지 표현하였고, 주춧자리돌(적심)을 깔았는데 이것은 발해의 것과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토성 바닥돌 겉면을 두 층으로 하고, 모서리 것은 'ㄱ' 모양으로 다듬은 것이나 밑에 놓인 돌에 홈이나 구멍을 내어 그 윗돌이 밀려나지 않게 한 것 같은 수법에 이르기까지 발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발해의 돌등(黑龍江省 寧安市 渤海 上京城 第2寺址였던 지금의 興隆寺 대웅전 앞에 있는 석등)과 신라의 석탑에는 특히 불국사 다보탑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석등과 다보탑은 모두 동시대인 8세기 중엽에 만들어졌으며, 균형을 잘 맞추면서 동시에 지붕의 요소들과 곡선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받침대(기단)는 모두 두 층으로 하였는데, 이는 석탑에서 목탑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보탑에는 팔각형의 요소들이 많고 거기에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이 결합되었다. 다보탑에서도 기단 한 변의 길이가 탑 크기의 기준을 이루고 있다. 다보탑 높이는 기단의 한쪽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팔각형을 그리면 기단과 그 대응변까지의 거리가 되며, 지붕돌의 높이는 기단 폭을 한 변으로 하는 정방형 위에 놓은 같은 너비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정점까지의 높이와 맞먹는다. 다보탑에서는 위로 올라가며 요소들의 크기를 차츰 줄여 일정한 체감을 나타냈으며, 1층 부분에서 기둥으로 둘러싼 부분과 그 윗부분을 적절이 대조시켰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발해 석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석굴암도 원과 다각형 돌을 원활하게 활용하였음을 들면서 발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일곱째, 신라는 발해와 동일한 크기의 자(척도)를 썼다. 553년에 건축된 황룡사는 고구려와 같은 크기의 자(尺)로 지은 것이다.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 자를 받아 쓴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라에서도 고구려 자를 그대로 썼을 것이다. 황룡사는 경주 도시계획 일원에 소속되어 몇 개의 리방을 차지하며 서있었다. 따라서 경주 도시계획에 활용된 자도 고구려 척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그대로 통일신라로 넘어가 682년에 준공된 감은사 건설에도 쓰였다는 것이다.

여덟째, 발해와 신라는 건축부재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곱새기와, 치미, 벽돌(연꽃무늬+넝쿨무늬의 방형과 장방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 북한의 장상렬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동질성을 보면 쉽게 이해되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기술의 보편성을 양국만의 특수성으로 인식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미 제시된 동질적 증거들이 과연 진정한 특수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야 한다. 부족한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보완하거나 다시 규명해 나가는 작업도 요구된다. 아울러 동질성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라유적은 대한민국의 고고학 분야 역량 강화로 근래에 많은 발굴성과가 있으며, 발해유적도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등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다. 일정 부분 동질성을 밝혀 나가는 작업이 가능하리라 본다.

II-3. 새로운 요소 탐색

1. 돌못(石釘) 사용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에 있는 발해 상경성은 외성, 황성, 궁성으로 이루어진 삼중성이다. 발해의 역사 229년 가운데 150여 년을 도움으로 삼았었다. 제일 뒤에 자리한 궁성 내 중궁에는 제1궁전부터 제5궁전까지 5개의 건물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5개의 궁전은 높은 기단 위에 건물이 조영되어 있었다. 기단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현무암으로 마감되었다. 기단 밖 바닥은 건물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산수석(散水石)을 깔았다. 산수석 재료는 돌(현무암)이 대부분이지만 벽돌이 깔려있는 곳도 있다. 각 건물에 따라 재료가 달랐다. 돌을 사용한 경우 일정 크기로 잘라 바닥에 깔면서 돌과 돌 사이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못을 사용하였다. 빗물로 느슨해진 땅바닥을 잡고 있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추운 겨울 동해(凍害)로 바닥이 치솟아 오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깔려있는 산수석보다 깊게 박아놓은 것이다. 발표자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도성에 이렇듯 돌못을 사용한 예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신라 경주지역에도 여러 곳에서 돌못이 사용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경주 남산신성

중창터에는 여러 개의 주춧돌과 함께 건물 기단 일부가 남아있다. 기단 면석 중간 중간에 두툼한 머리를 가진 돌뭇을 박아놓았다. 또한 불국사 본전 구역 앞 청운·백운교가 있는 축대에도 많은 돌뭇이 보인다. 이곳은 돌뭇뿐 아니라 축대 전체를 가구식으로 짜 맞추어 고도의 축조기술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돌뭇은 감은사지 중문 밖 축대에도 사용되었다. 감은사는 경상북도 양북면 이견대와 대왕암이 있는 동해바다에 이르기 직전의 산기슭에 있는데, 높은 축대 위에 거대한 삼층석탑이 금당 앞 좌우에 서 있으며, 그 앞은 동남으로 대종천이 흐른다. 금당터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높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춧돌 밑에 지하공간을 구성하고, 장대석을 마루식으로 덮은 후, 그 위에 주춧돌과 대석을 놓아 건물을 조영하였다. 중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축대로 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 지역이 바다와 가까워 침습의 우려로 매우 견고한 축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굽은 머리를 가진 돌뭇을 축대 중간 중간에 박아 넣어 토압에 견디도록 하였다.

경주 월성을 드나들었던 월정교(月淨橋) 문루에도 돌뭇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곳의 돌뭇도 불국사, 감은사지, 남산신성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경주지역에 사용된 돌뭇은 발해 상경성 경우처럼 수직으로 박은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박아 빗물에 의한 토압으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발해와 신라는 돌뭇을 사용한 건축방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뭇을 박는 방향이 수직이나 수평이냐가 달랐다.

2. 우동(隅棟) 새김

앞 절(II-2)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당시 신라는 돌 다루는데 있어 매우 세련된 기술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남산에 남아있는 석탑, 불상, 건물터의 건축부재 등지에서 지금도 실견할 수 있다. 석조기술 가운데 방형의 석탑 조영에서 기단이나 옥개석을 만들 때 사각형 모서리를 90° 직각이 아닌 예각으로 처리하고, 두께를 위치에 따라 달리하여 모서리 부분을 좀 더 날렵하게 보이게 하였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서리에 45°로 선을 새겨 넣어 말끔하게 정리된 듯하게 조형미를 보태었다. 이를 우동(隅棟)이라 한다.

발표자가 신라 경주지역에서 우동을 확인한 예는 경주 남산 창림사지에서이다. 창림사지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록에 의하면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알영(閼英)왕비가 태어난 후 이곳에 궁궐을 지어 13년 간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사찰이 건립되기 전 궁궐이었으나, 그 이후 어느 시기에 궁궐이 '창림사(昌林寺)' 절로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신라 역사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부터 건물이 조영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역(寺域)의 지형은 상·중·하 모두 3단으로 나누어진다. 제일 서쪽인 하단은 남북 60m, 동서 26m 규모로 추정되며, 현재 목 없이 남쪽을 향한 쌍귀부(雙龜趺)와 서쪽을 향한 장대석 3기, 주위에는 주춧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중단은 남북 52m, 동서 30m로 주춧돌과 장대석이 있고, 상단은 복원된 삼층석탑이 있는 곳이다. 이 삼층석탑은 2015년 3월 보물로 지정되었다.(2014년 7월 30일, 2015년 3월 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참조) 우동이 확인된 곳은 하단 구역으로 중단과의 경계 부근이다. 건물의 기단 모서리에 깔려있던 장대석인데 45°로 사선이 그어져 있어 정제된 완결미를 표현해주고 있다.

발표자가 발해 상경성에서 우동을 확인한 곳은 제2궁전터 남쪽 회랑과 연결되어 있는 서액문(西掖門) 기단 모서리 바닥이다. 서액문은 제2궁전 기단 서쪽에 있다. 두 산수 사이의 거리는 3.1m이다. 산수를 포함한 기단의 남북 길이는 12.5m, 동서 너비는 7.4m, 높이는 0.45m이다. 네 벽을 감싼 돌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위에는 산수가 있는데, 바깥쪽에 돌뿔을 박았다. 그 안쪽은 너비 0.12~0.15m에 달하는 산수아자(散水牙子)이다. 돌뿔은 두 산수아자 사이에 있고, 가장 안쪽에는 너비 0.3m에 달하는 판석이 있다. 남쪽에 있는 산수는 파괴되었지만, 일부에는 산수아자와 판석이 남아있다. 북반부에 있는 산수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다. 두 모서리에 있는 산수판석은 꺾인 “ㄱ” 형태이다.(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報告書-, 文物出版社, 2009) 북반부에 있는 산수 중 오른쪽 것은 단순하게 45°의 우동만 새겨 놓았지만, 왼편 것은 선을 밖으로 가며 점점 턱을 높게 두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또한 길림성 훈춘(琿春)에는 몇 년 동안 발해의 도읍 역할을 했던 팔련성 유적이 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琿春市文物管理所, 『八连城』 2004~2009年度渤海国东京故址田野考古报告, 文物出版社, 2014) 제1궁전 기단 모서리 부분에도 우동이 매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마침 경주 불국사 본전 앞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 계단참 모서리에 이와 동일한 우동이 표현되어 있어 건축문화에 있어 동질성이 높은 예가 그곳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발해와 신라는 건축방면에서 명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맺음말 : 발해건축 연구의 새로운 지평

본 글은 발해건축 연구가 지금까지 취해 왔던 특정 주변국가(민족)와의 관계에만 몰입되어 발해건축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공식적인 왕래가 별로 없었던 신라와의 건축방면 동질성을 주제로 몇 가지 단서들을 제시하였다. 글은 우선 발해와 신라의 대외관계를 고찰해 보았고, 이어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동질성을 밝힌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새롭게 발견한 양국 간 동질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요소들을 제시해 보았다.

기존에 연구된 성과에서 제시된 양 지역간 공통점은 동일한 리방제 채택, 건축재료로 석재를 많이 사용, 무덤구조의 동질성, 돌 축조기술과 표현기법, 돌을 활용한 입체조형기법, 동일한 척도(尺) 사용, 건축부재의 동질성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발해와 신라의 건축방면 공통점을 보면 쉽게 이해되어 수궁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기술의 보편성을 양국 간의 특수성으로 인식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제시된 것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어 발표자는 양국 간 돌뭇을 사용한 예와 기단 바닥 모서리에 우동을 새겨 넣은 조형미가 양 지역 간 동질성이 있는 요소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발해를 바라보는 입장은 당시 그 주변국이었던 당과 그리고 발해를 탄생시킨 고구려와의 상관성에만 몰입되어 당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신라와의 동질성은 무시된 오류를 범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남국 신라와도 동등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이후의 시대인 고려뿐 아니라 요(거란)와 금(여진)의 건축까지도 상호 비교되어야 진정한 발해건축의 정체성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学边疆考古研究中心·珲春市文物管理所, 『八连城』, 文物出版社, 201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리정남, 「삼국시기 수도형식에 관한 연구」, 『고고학연구논문집19』, 사회과학출판사, 201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5』 중세편 발해 및 후기신라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장상렬, 「발해건축의 력사적위치」, 『고고민속론문집3』, 사회과학출판사, 1971.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2009.